

# 사제간 대화집

## '학교 가는 길'

-정명고 Wee 클래스-



편집 : 정수진

## 〈책 소개에 부쳐〉

학교로 출근하는 길은 설레입니다.  
매일매일 예측하지 못한 아주 '인간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아침 일찍 위클래스에 찾아와 잠을 자는 학생도 있고,  
차를 한 잔 마시는 학생도 있습니다.  
기타와 노래로 하루를 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여러 명의 학생이 위클래스 입구의 원형 데스크에 뱅 둘러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전문용어로 집단 독백 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기줄의 참새가 기억나더군요.  
아무튼 말하고 싶은 것이 참 많다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상당 간'에도 수만 가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공부 이야기, 진로 이야기,  
마을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가 얹히고 섞여  
광당하기 힘들다고 눈물을 짓거나, 범위를 넘어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느껴 지더군요.  
다 생명 활동이니까요. '다 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이런 생명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지요. 그래서,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대화 내용을 책으로 묶어 보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대화하고 녹취를 옮겨 준 학생들과 대화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생명 활동이 담긴 '생명의 서'같은 책입니다.  
대화 주제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경험한 학창 시절의 학교와 교사로서의 학교에 대해 묻고 답해  
보는 것이지요.  
이 책 속의 글은 앞으로 정명고 위클래스의 상담 교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래의 아이들이 겪을 학교에 대한 고민과 선생님들의 응답을 읽어보면서  
위클래스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학교 가는 길'을 잘 찾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길을 찾기 위해 마을 속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마을에 새겨 넣습니다.  
'좋은 이야기 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사랑이 전문성이다.'

정명고 Wee클래스 상담교사 이성재 드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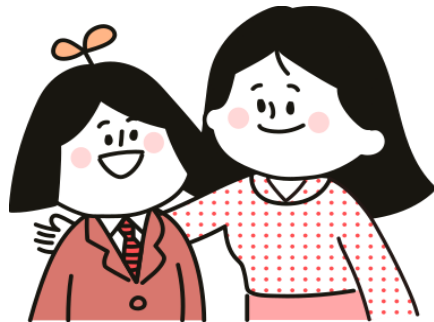
“수학도 어렵고, 과학도 어렵고, 대인관계는 더 어렵다!  
선샤인한 선샤인과 박금진 선생님과 속 깊은 이야기!”

---

## 〈학생의 이야기〉

선샤인은 성적을 올리고 진로를 탐색하려고 학교에 다닌다. 이유가 있어서 학교에 다니지만 스트레스는 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 관계다.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이 어렵다. 두 과목이 어렵기도 해서, 인문계열을 가려고 마음 먹었다. 최근에는 친한 친구가 있어서 재미있게 수다는 떨면서 주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가 힘들어도 학교에 나오는 이유는 역시 친구가 있어서다.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딱히 없다’고 한다. 그럴 수 있다. 이유 없이 뭔가 해야만 하고,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의문 투성이인 ‘학교에 다닌다는 것’에 대해 오늘 말벗이 되어 줄 분이 있다. 바로 박금진 선생님이다. 선샤인과 박금진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엿보자. 대놓고 보는 것 보다는 엿보는 것이 재미있으니. 읽는 분, 몰래 보는 표정으로 탐독하시기를!



## 〈인터뷰〉

**선샤인** : 학교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금진 선생님** : 내가 생각하는 학교도 네가 생각하는 학교와 비슷해. 나는 학교를 친구 만나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해. 물론 학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네가 얘기한 성적도 올려야 하고, 사회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 그런데 다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 성적도 중요한데, 실은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친구 관계지. 학교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 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해.

**선샤인** :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요?

**박금진 선생님** : 언젠가는 선생님이 담임하던 애들 중에 한 명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망쳤어.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와서 자퇴를 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말렸을까 허락했을까? 말렸어. 왜 말렸냐면 학교는 성적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그 아이는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겠지. 학교에서 꼭 성적이 좋다고 해서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게 아니고, 외로울 때, 자신을 지탱해 줄만 한 테두리나 울타리 같은 게 필요한데 학교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성적 하나로 그거를 다 때려치우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을 교사로서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했어. 나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선샤인** : 음. 그럼 정명고등학교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박금진 선생님** : 정명고등학교의 매력은 애들이야. 학생들. 애들 하나 하나가 다 매력적 이야. 그중 하나가 네고. 애들이 다 괜찮아. 솔직하고, 정직하고, 청소년기에 가져야 할 가장 보통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정명고의 진짜 매력은 '학생들'이 있다



---

**선샤인** :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박금진 선생님** : 학창시절에 기억은 특별한 게 없어. 난 체육시간이 제일 좋았어. 체육시간에 땀 흘려서 축구 하는 게 좋았고 농구 하는 게 좋았고. 우리 때는 옛날 학교니까, 수돗가에 가서 애들끼리 샤워하고 물장난하는 게 좋았어. (이거 진짜 재미있거든 ^^)

---

**선샤인** :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봤을 때 학교가 선생님 삶에 어떤 영향을 준 거 같아요?

**박금진 선생님** : 학교에 있으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국어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시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것을 안 거지.

---

**선샤인** : 저는 가끔 일상생활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선생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세요?

**박금진 선생님** :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이 겪을 수도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제일 큰 어려움은 경력이 오래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 나는 학생들이 잘 안 바꾼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그럴 경우에 조금 맥이 빠지기도 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아이는 나를 만나면서 어떤 의미를 찾을까, 그럴 때 내가 참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힘들어. 그 때가 많이 좀 속상해. '내가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 가도 그래도 이 한 아이한테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시간이 허락해서 우리가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이 아이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세월을 보내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겨 나가는 것 같아.



---

**선샤인** : 교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좋으셨던 경험이 어떤 건가요?

**박금진 선생님** : 내가 제일 좋았던 경험은 전학을 와서 같이 점심을 먹을 아이가 없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속상했어. 그래서 그 애가 밥 먹을 애도 없고 해서 따로 외롭게 힘든 생활을 보냈어. 그래서 어머니도 오시고 당부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아이한테 이런 배려도 하고 저런 배려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한테 잘 견뎌라, 잘 이겨라 라고 해줬는데 졸업하고 나서 학교 근처에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 그 아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야! 누구야' 라고 했더니 그 때 선생님 너무 고마웠다고 말 해줬을 때 정말 보람찼어. 그 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학교를 그만둘 뻔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덕분에 지금 내가 대학생이 됐다고. 그 애가 들었을 때, 그 때가 제일 좋았어. 정말 짜릿했어. 우리 선샤인이한테 무슨 당부를 하고 싶었을까? '자기표현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선생님들 한테만 표현을 안 하는지, 아님 수업시간에만 조용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과는 자주 자기표현을 하니?

---

내가 선샤인이한테 당부하는 것은 솔직히 대답하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게 좋다는 것이야.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어떤 피해를 볼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싫은 소리를 들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일단 해봐야 돼. 그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느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와 얘기 할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상처받지 말고,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그냥 네 모습을 드러내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덜 하고. 뭐 이상하게 보는 아이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표현하는 것을 용기를 내서 하면 네가 얻어야 될 친구, 네가 좀 멀리 해야 될 친구들이 구분이 되잖아. 용기내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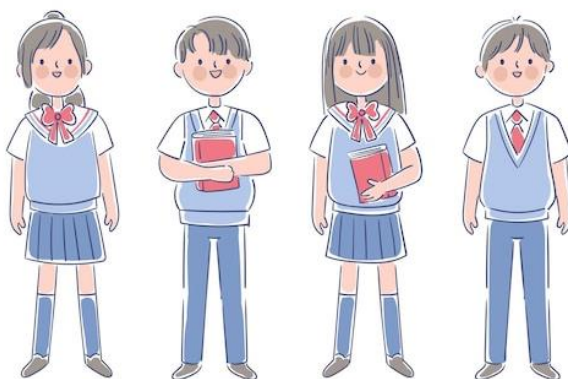
---



## 〈대화 뒤풀이〉

“선샤인이가 좀 더 자기의 이야기들을 표현하면 선샤인이 너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용기를 내서 표현을 하면서 네가 얻어야 할 친구, 네가 좀 멀리 하고 떨어져야 하는 친구를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의 당부야. 너를 조금 더 표현해 보라고!” -박금진 선생님

“선생님~~ 저도 이 대화가 재밌기도 했고, 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알아간다는 것이 재미있네요.” -선샤인



“수학도 어렵고, 과학도 어렵고, 대인관계는 더 어렵다!

선샤인한 선샤인과 박금진 선생님과 속 깊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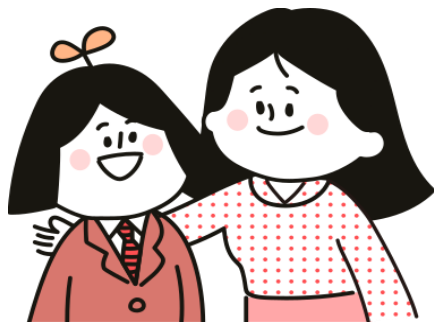
---

“학생이니까 학교 다녀요.  
등산하는 기분으로 등갯길을 오르는  
딸기의 학교 등반기!”

---

## 〈학생의 이야기〉

딸기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이니  
까.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정명고등학교가 가진 특징, 등교  
길이다. 그래도 그 높은 길을 꾸역꾸역 걸어 올라오면 친구도 만나고, 선  
생님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좋  
은 기억과 추억을 만드는 일이다. 선생님은 어떤 학교를 다니셨을까? 공  
금하다. 궁금하면 물어보면 된다.





## 〈인터뷰〉

**딸기**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학교는 무엇인가요? 학교가 있는 이유요?

**윤범노 선생님** : 우선 너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겪는 소사회로써 사회의 작은 역할을 배우고 익히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해.

**딸기** :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윤범노 선생님** : 하나의 소사회로써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다 보면 얻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배우는 점도 많이 있을 거야.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을 가져야 한다면 학교를 다니면서 익힐 수 있으니까 학교는 좋은 공간이지.

**딸기** : 선생님은 정명고를 졸업하시기도 했잖아요. 정명고등학교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윤범노 선생님** : 학생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꼽을 수 있어. 그리고 학교 위치는 높지만, 대신 공기 좋고 부천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경치도 좋은 것이 매력적인 것 같아.

**딸기** : 선생님의 학창 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학교를 좋아하게 되는 경험 같은 것 같아요.

**윤범노 선생님** :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선생님 때는 옛날에 학력고사 시대라서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어. 아침에는 8시부터 수업 시작을 했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14시간을 학교에 있었거든. 학교에서 주구장창 공부만 했던 기억이 나네. 학교를 좋아하게 된 경험은 사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싫었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딱히 좋은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 (아 이러시면 안됩니다. 편집자 주)



---

**딸기** :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봤을 때, 학교가 준 영향이 있을까요?

**윤범노 선생님** :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배웠던 것들이 다음 과정으로 갈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 대학교에서 대학원이나 사회에 진출할 때 전에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거 같아.

---

**딸기** : 저는 가끔 일상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윤범노 선생님** :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내가 하고 있는 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를 주위의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나 자신과 비교해 보는 거야. 친구들이 진짜 나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나보다 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면 비교해 보면 어떤 비교 대상이 생긴단 말이지. 물론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눈여겨보면서 나보다 열심히 한다 싶으면, '아 내가 더 열심히 노력 해야겠구나' 하는 거야. 내가 힘든 점이 있을 땐 친구들이 있잖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 못 할 것을 같은 나이대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

**딸기** : 선생님은 노력이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윤범노 선생님** : 음 아무래도 노력은 상대적인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잖아. 앤 좀 더 머리가 좋고 좀 더 오래 앉아있을 수 있고, 난 머리가 좀 안 좋고 오래 못 앉아있어. 그러면 할 수 있는 양이 다르지 근데 그걸 조금씩 극복하는 거야. 20분 앉아있는 걸 30분 앉아있고, 30분 앉아있는 걸 40분 앉아있고,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다 보면 나름대로 내 한계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노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



---

**딸기** : 직장을 정명고등학교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범노 선생님** : 음 선생님은 아무래도 정명고 출신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원래 다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은사님께서 학교 선생님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와서 고민 끝에 제의에 수락을 해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21년째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

---

**딸기** : 저는 선생님이랑 오랫동안 얘기를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서 느낌이 신기하고 정명고에서 선생님이로 일하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윤범노 선생님** : 선생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1학년 마쳤으니까. 1학년 동안 잘 생활을 했어. 나를 대로 힘들 때도 잘 극복을 했고. 2학년 때는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하면 발전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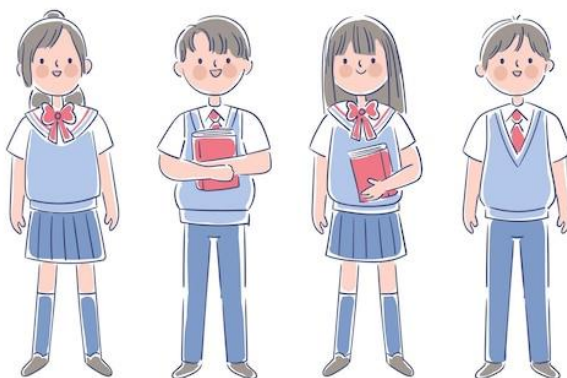
---



## 〈대화 뒤풀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공부보다는 꼭 공부보다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했으면 좋겠어. 공부도 잘하면 좋고. 어쨌든 간에 네가 뭘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걸 난 잘할 수 있다! 잘 해야겠다! 잘 이겨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윤범노 선생님**

“선생님께 수업만 들었지 따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여쭙볼 수 있어서 새로웠고, 질문을 통해 선생님의 새로운 면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딸기**



“학생이니까 학교 다녀요.  
등산하는 기분으로 등갯길을 오르는  
딸기의 학교 등반기!”



---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삶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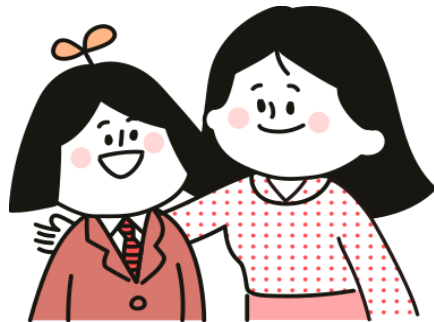
인생은 미로 같다.

미로에서 길을 찾기 위해, 박대웅 선생님을 찾은  
미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 〈학생의 이야기〉

미로에게 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 나아가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다. 그런데 자꾸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제대로 수습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런 어려움으로 자퇴를 생각해도, 막상 자퇴를 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미로는 미로를 더 드러내고 싶다.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절이 또 오리란 보장이 없으니, 자신을 더 드러내 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지만 쉽지 않다. 그런데 미로의 말을 잘 듣고 상냥하게 대하는 분이 있다. 박대웅 선생님이시다. 오늘은 그런 상냥한 박대웅 선생님과 만남을 나누고 기록해 본다.



## 〈인터뷰〉

**미로**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학교는? 학교란 무엇인가요?

**박대웅 선생님** : 소사회로서, 사회에 나가기 위해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는 자신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지내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곳으로 매우 유익하지요. 물론 늘 생각하고 고민하여 관찰을 해야겠지요. 고전의 책 속에 다양한 인물에서 배우 듯, 학교에서 다양함을 알게 되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미로** : 학교에 다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대웅 선생님** : 다니지 않을 이유도 없지요. 다니지 않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막연하게 싫어하는 것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자체가 다녀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미로** : 정명고등학교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럼 정명고등학교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박대웅 선생님** : 학생이 학생답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적극적인 선생님들과 잘 따라와 주는 학생들도 많고요. 아마도 우리 학교 만큼 학생들과 가깝게 생활하는 고등학교가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미로** : 선생님의 학창 시절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박대웅 선생님** : 창문 밖으로 떨어질 뻔 한 아이를 선생님께서 잡아 주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히어로 같으셨겠어요. 그래서 박대웅 선생님이 그러셨구나: 편집자 주)



---

**미로** :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봤을 때, 학교가 선생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나요?

**박대웅 선생님** : 내 직업이 선생님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의 인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요. 지금의 나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시기입니다.

---

**미로** : 일상적으로, 저는 친구가 생기면 자꾸 집착하게 되어서 힘들어요. 선생님께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박대웅 선생님** : 선생님도 미로처럼 어려움이 있어요. 선생님은 할 일을 자꾸 미루게 돼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는 ‘다름’을 인정하는 일도 힘들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꾸 노력하고 있어요.

---

**미로** : 저는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낮아서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대웅 선생님** :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미래는 아직 바꿀 수 있으니까요. 과거로 자신을 평가하고 과거로 자신의 미래를 판단하고 결정지어 놓는다면 변화가 있을 수 없겠지요. 지금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것이라 지금을 더 중시했으면 해요.

---

**미로** : 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나요?

**박대웅 선생님** : 친구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사이에서 중재하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많이 과격했지만, 단체 행동에서 이탈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매우 역동적으로 사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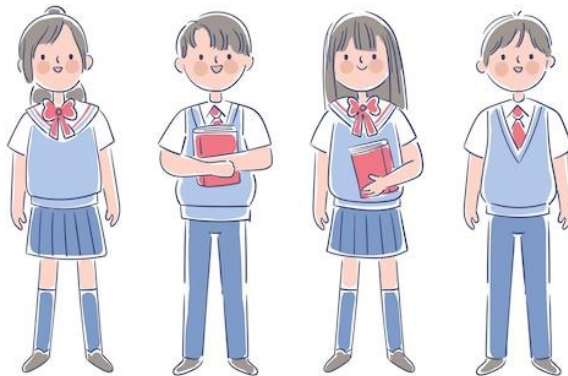
---



## 〈대화 뒤풀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을 더 드러내세요. 미로가  
능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박대웅 선생님**

“가족이나 친구 이외의 사람과 이렇게 각각의 의견을 나눠 본 경험이 오랜만이라 좋  
있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도 생긴 것 같고요.” - **미로**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삶은 알 수 없다.

인생은 미로 같다.

미로에서 길을 찾기 위해, 박대웅 선생님을 찾은

미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두꺼비의 학교에 대한 철학은 단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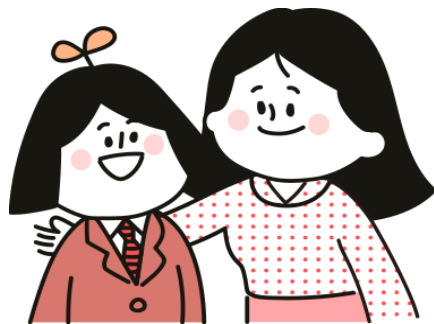
학교는 친구 만나러 오는 곳이다!

친구가 있어 행복한 ‘두꺼비’의 학교 이야기!”

---

## 〈학생의 이야기〉

두꺼비가 학교에 오는 이유는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니는 의미는 여전이 ‘?’다. 물어도 뭐라고 대답하기는 힘들다. 등교 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 그럼에도 두꺼비가 학교에 나오는 이유는 역시 친구다. 두꺼비가 학교에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은 역시 친구들과 수련회를 가는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라면.....학교, 나를 괜찮다! 그리고 선생님도 괜찮다! 그런 우리 선생님은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 〈인터뷰〉

**두꺼비**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학교란 무엇인가요? 학교가 있는 이유?

**윤소연 선생님** :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리 배우는 공간이라 생각해요.

**두꺼비** :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윤소연 선생님** :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친구를 만들고, 운동을 하는 등 그 시절만의 추억을 가장 많이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미래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그리고 생각나는 시절이 학교를 다녔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 만큼 많은 추억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겠죠?

**두꺼비** : 정명고등학교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윤소연 선생님** : 일단 높은 곳에 있으니 공기가 맑고 사계절 풍경이 매우 아름다운 것 같아요. 통학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적인 풍경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매우 좋으시고 학생들 또한 매우 좋아요!

**두꺼비** : 선생님의 학창 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학교를 좋아하게 되는 경험 같은 것어요

**윤소연 선생님** :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야자(야간자율학습)가 의무였어요, 학원이나 과외를 안 하는 날은 무조건 저녁 9시나 10시까지 남아서 야자를 해야 했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은 1학년 입학한 지 얼마 안되었을 때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는 걸 까먹고 책상 서랍에 넣어 놔는데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려서 선생님께 뺏긴 적이 있었어요. 혼나거나 잘못했던 건 기억에 참 오래 남는 것 같아요 ㅎㅎ



---

**두개비** :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봤을 때, 학교가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윤소연 선생님** : 학교라는 곳에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소중한 친구들을 곁에 둔 것이 가장 큰 인생에 영향을 주었어요. 실제 결혼한 남편 소개해준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랍니다~ 정말 큰 영향력이죠?

---

**두개비** : 저는 가끔 일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예-불안, 우울,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선생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떻게 이겨내세요?

**윤소연 선생님** : 저는 무언가를 할 때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실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획보다 미뤄지고 어긋나고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 원인에 있어서는 제 게으름이 쥔 커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 조금씩 잊혀지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그럴 때 다시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

**두개비** : 저는 학교 폭력이 궁금해요.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나와야 하는 의무가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소연 선생님** : 아무래도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학생들이라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많이 무섭고 불안할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제가 당사자라면 너무 무섭고 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실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학교나 외부 상담을 받다가 자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이건 학교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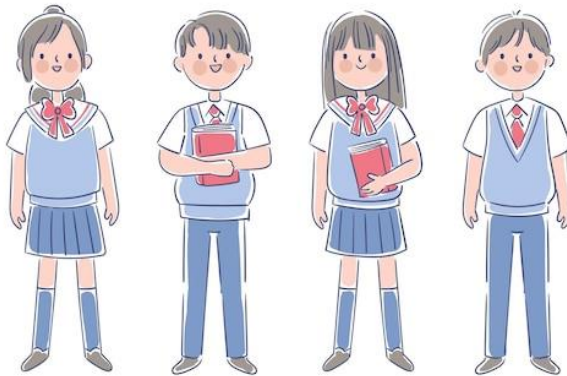
---



## 〈대화 뒤풀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간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윤소연 선생님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학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왜 다니는 지 성찰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두개비



“두개비의 학교에 대한 철학은 단호하다.

학교는 친구 만나러 오는 곳이다!

친구가 있어 행복한 ‘두개비’의 학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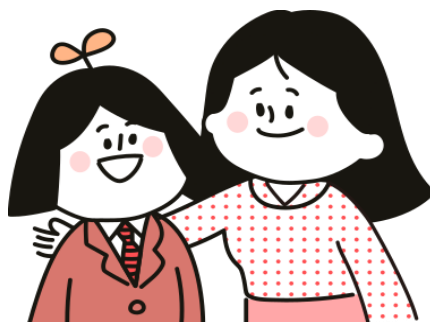
---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하려고 학교 다녀요!  
습관을 고치고 싶은 효자의 이야기”

---

## 〈학생의 이야기〉

효자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효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 물론 다른 이유도 한 가지 더 있다. 사회 생활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효자가 가진 습관을 고치기 위해 학교를 다닌다. 학교 다니면서 힘든 점은 선생님들과의 분쟁이다. 선생님들이 효자에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효자도 선생님들을 좋지 않게 대했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힘든 것은 교복 입는 것. 이 역시 지금은 잘 입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이 교복이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한다. 그래도 불편하다. 효자는 학교를 다니면서 약간의 일탈도 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야외수업이 로망이다. 출리지 않은 야외에서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고..... 효자는 홍승진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다. 왜냐고? 잘 노실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단다. 잘 노시는 분이 자신을 잘 이해해 줄 것 같다고. 잘 노실 것 같은 홍승진 선생님과 대화 속으로 들어가본다.



## 〈인터뷰〉

효자 : 선생님, 학교는 왜 다녀야 할까요?

홍승진 선생님 : 아직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성숙했다고 보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미성숙의 단계잖아. 선생님들로부터 예의범절과 사회적 규칙들을 배우고,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 그래서 학교 생활이 중요하고 학교를 꼭 다녀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

효자 : 그런 면에서 정명고등학교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홍승진 선생님 : 정명고등학교의 매력은 인사 잘하는 친구들과 매력적인 선생님들 아닐까? 너처럼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게 최고의 자랑이고, 개성 넘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게 최고의 매력이라 생각해! 말하고 보니까 효자도 정명의 자랑이네!

효자 : 선생님은 학교를 어떻게 다니셨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요

홍승진 선생님 : 선생님은 촌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중고등학교가 다 같은 친구들이었어. 초등학교는 작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고등학교까지 친구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 긴 인연이지.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놀기도 잘 놀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했어.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어. 말하기 좀 그런데, 성적이 상위권이 었거든. (효자는 이 사실에 놀랐다고!) 선생님은 성적이 상위권에 학생회 활동하면서 학생회장을 했어. 그래서 그 때 처음 수시 대학을 썼던 때라서 대학도 여러 군데 합격 했어. 그러니까 잘 놀고, 공부도 잘 했고, 학교 활동도 많이 해서 대학도 가게 된 것이지.



---

**효자** : 우리 학교에는 제가 마을 가는 선생님이 세 분 계셔요. 위클래스 선생님, 한윤경 선생님, 홍승진 선생님. 제가 밑에 골목 내려갈 때 선생님을 자주 마주치는데요, 그 때마다 잘 대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원 지 모르게 정이 갔어요. 저를 그렇게 대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홍승진 선생님** : 선생님이 평소에 효자를 봤을 때 교무실에 많이 불려오는 것 같았어. 멀리서 봐서 그런지 그렇게 보였어. 내 개인적으로는 효자가 그렇게 학교생활을 하면 학교 생활이 재미없고 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뭔가 질책하기 보다는 따뜻하게 마을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효자를 보면 관심을 보이면서 인사를 잘 하자고 생각했지. 그러면 효자의 학교 생활이 조금 즐겁지 않을까 하고. 그랬을까?

효자: 예, 그랬어요. ^^

---

**효자** :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홍승진 선생님** : 학창 시절에 수시모집이 기억나! 선생님이 거의 1세대였거든. 그래서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 체육대회가 기억에 남아! 계주 결승전에서 골반 근육이 파열되어서 3주간 입원하면서 병원에 누워서 중간고사를 치렀던 것이 생각이 나네.

**효자** : 공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억도 있으시네요.

**홍승진 선생님** : 학교는 단지 학업과 지식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학교는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야. 그렇기에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나눔과 관용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양과 덕목을 쌓는 곳이지.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 함께 미래 설계를 같이했던 친구들이 있잖아. 이 친구들은 평생 동안 너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동반자들이 될 테니까, 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면에서 학교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라면, 친구 관계라고 생각해.



---

**효자** : 그럼, 선생님 인생에서 학교가 어떤 영향을 준 거 같아요?

**홍승진 선생님** : 학교는 내게 있어, 아니 내 인생에서 엄청난 부분과 영향을 차지했던 것 같아.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자치회를 운영해보며 리더십과 봉사의 의미도 알아보고 우애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인생의 동반자들을 만났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삶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거든.

**효자** : 저는 가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감정 조절에서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세요?

**홍승진 선생님** :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 하지만 선생님은 역시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못 이겨 낼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해! 열심히 무언가에 열중하다 보면 또 역경과 고난은 지나가더라고! 얼마전까지 대학원 논문 때문에 엄청 고생 했어! 음, 그리고 가끔 하는 쇼핑이 선생님 삶의 활력소야!!

---

**효자** :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좋으셨던 경험이 어떤 건가요?

**홍승진 선생님** : 교직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라면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좋은 기억과 경험이 많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졸업하고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학교에 찾아올 때 가장 부뒀더라고. 대학 생활하면서 학교 와서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할 때,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인사 올 때, 휴가 나와서 찾아올 때, 졸업하고 취업하고 찾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믿고 잘 따라와 주고 서로 간에 공감대, 즉 라포 형성이 잘되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만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잘 챙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기에 학생들도 충분히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더라고, 효자도 꼭 학교 자주 찾아올 거지?

**효자** : 네! 하하. (이 질문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 ^^)

---





---

**홍승진 선생님** : 선생님은 효자 생각하면, 우연히 복도에 지나가다 마주칠 때 선생님이 입은 옷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이것 저것 질문했던 상황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효자는 색약이기는 하지만 유독 패션에 관심 많고 그래서 관련된 일이 하고 싶다고 했던. 선생님 항상 응원할 테니 관심있는 분야, 꼭 하고 싶은 너의 이상을 찾아서 반드시 실현하길 바래.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환영이니 선생님을 찾아와^^

**효자** :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

## 〈대화 뒤풀이〉

“고등학교 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 고등학교 생활이 미래를 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대학과 진로를 찾아야 미래 생활을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기 위해서 3년의 생활이 중요하지. 특히 졸업하면 바로 성인이 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시기가 되고. 이 시기에 평생 가는 친구들과 즐겁게 재미있고 보람되고 잘 사귀고, 행복하게 진로 설계하면서 자기 생각을 펼쳤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칙 질서 잘 지키면서 지내면 행복하지 않을까?”- **홍승진 선생님**

“선생님이 처음에는 좀 놀았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다. 어쩌면 이래서 나를 잘 도와 주시지 않을까? 대화하면서 선생님은 많이 똑똑하시다는 생각을 했다.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하시는 것이구나. 어쩌면 나도 내가 할 것을 하면서 놀면, 선생님처럼 미래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우상이 되고, 멘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대화였다.” -**효자**

---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하려고 학교 다녀요!**

**습관을 고치고 싶은 효자의 이야기”**



---

“학교는 학위 취득하고, 친구들이 있어서 오는 곳이에요  
이왕 할 거 생기부에 활동 가득 채우는 학교 생활해 보려고요.  
유쾌한 떡볶이의 학교 다니기! 생기부에 무엇이 채워질까?”

---

## 〈학생의 이야기〉

떡볶이는 학교는 학위 취득을 위한 방편이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학위 취득하러 오는 곳에 친구가 있다. 심지어 원가를 막 하면 생기부를 채우기도 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학위를 잘 취득하고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성적 고민이 많다. 노력을 해도 그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어찌 떡볶이의 고민뿐이랴! 그래서 떡볶이가 선생님 한 분을 찾았다. 김지현 선생님과 떡볶이는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 〈인터뷰〉

**떡볶이**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학교란 무엇인가요? 학교가 있는 이유?

**김지현 선생님** : 학교라는 곳은 교육의 개념을 넘어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하는 개념의 교육은 공교육만이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되는 사회생활은 다른 사교육 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위해 자퇴를 하고, 경정고시로 고등학교 학위를 따는 일이 많아졌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입시가 학생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더 멀리 넓게 본다면 입시 뿐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배우게 되는 사회성을 놓치고 가게 되지요. 우리 인생이 대학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장해가는 것이고 그러한 성장의 발판을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가 박탈 시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떡볶이** : 그럼, 학생들이 꼭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지현 선생님** : 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사회성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인지하고 있지 못하겠지만, 학교생활 안에서 우리는 사회성을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지요. 한 반에서는 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칙 또는 더 크게는 학교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통해 사회규범을 배워간다고 생각해요. 또한 학교 생활 중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학교 안에서 잠재적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떡볶이** : 선생님이 보시기에 정명고등학교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김지현 선생님** : 사학이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공학보다 학교에 남다른 애착이 있으시고 그게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니까, 학생들을 위한 마음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다 보니 수업에도 열정이 넘치시고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많이 품어주고 계십니다.

---

**떡볶이** : 선생님의 학창 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학교를 좋아하게 되는 경험 같은 것어요

**김지현 선생님** : 고3 때 반 친구들이 다같이 으쌰으쌰 해주는 게 있었는데, 명절이거나 공휴일일 때 학교에 나와서 다같이 공부하고 점심 도시락도 싸와서 비빔밥도 해먹고, 그걸 교장선생님께서 보시고 같이 함께 해 주셨던 기억이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어. 내 기억 속 나의 학교는 나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곳으로, 또는 그런 선생님이로 인식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

**떡볶이** : 선생님의 고시절은 어땠나요?

**김지현 선생님** : 책을 많이 읽었던 시기였어요. 소설책이라도 다독을 하면 독해력이 향상되니까 떡볶이도 공부하다가 지칠 땐 독서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떡볶이** :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봤을 때, 학교가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김지현 선생님** :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교사를 꿈꿨는데, 고등학교 때 화학선생님을 통해 교사라는 진로를 확고하게 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에게 학교라는 곳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고 정할 수 있게 다져준 곳이라고 생각해요.

---



---

**떡볶이** : 개인적으로 성적향상이 안돼서 속상해요. 선생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궁금해요.

**김지현 선생님** : 성적 향상이 안 되면 속상하지요. 물론 선생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당시엔 성적이 정말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문제였던거 같아서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별게 아니더라구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성적 때문에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너무 답하게(강게: 편집자 주) 빠지지 않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서 빨리 문제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

**떡볶이** : 음, 그래도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지현 선생님**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앉아있는 시간이라도 늘게 되면 공부하는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아지거든요.

---

**떡볶이** :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아야 할까요? 저는 유치원 교사가 꿈이에요

**김지현 선생님** : 유치원 교사니까, 어린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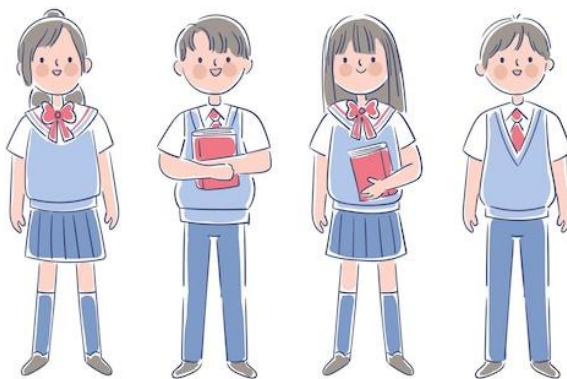
---



## 〈대화 뒤풀이〉

“떡볶이가 가진 밝은 성격이 유치원교사랑 잘 어울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학업량을 늘리고, 공부에 조금 더 매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치원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해요!!!” -**김지현 선생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게 되었고, 학교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떡볶이**



“학교는 학위 취득하고, 친구들이 있어서 오는 곳이에요  
이왕 할 거 생기부에 활동 가득 채우는 학교 생활해 보려고요.  
유쾌한 떡볶이의 학교 다니기! 생기부에 무엇이 채워질까?”



---

“어쩔 수 없어서 다니는 곳, 학교!

찌질 하지 않은 삶을 위한 내면의 힘을 기른 대화  
선생님 보다, 인생 선배와의 대화”

---

## 〈학생의 이야기〉

훈남이가 학교 다니는 이유? 어쩔 수 없으니까 다닌다. 그렇게 다닌다는 것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증명이 된다. 그게 학교 다니는 의미다.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증명을 하는 것. 아마 우리 학교 학생 다수가, 학교가 힘든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등굣길을 이야기 할 것이다. 훈남이도 그렇다. 등교가 가장 힘들다.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등굣길도 힘들지만 그래도 학교에 오면 친구를 만나고, 만나서 노는 것,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노는 것이 제일 재미있다.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을 한 번 제대로 해 보고 싶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어울려 보는 경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어 볼 수 있는 훈남이만의 즐거움 일 거다. 그리고 오늘은 훈남이와 친한(?) 선생님과 대화를 학교에 대해 친근하게 대화를 해 본다.



## 〈인터뷰〉

윤남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학교란 어떤 곳이에요?

이윤경 선생님 : 학교란 배우는 공간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이고, 무엇보다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도 배울 수 있고, 혼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같은 나이 친구들과 학교가 아니면 언제 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겠어?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라고 생각해.

윤남 : 그럼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윤경 선생님 : 비슷한 관점인데,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는 바로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를 제대로 찾을 수 있고, 또 같은 친구들의 삶을 보고, 경험하면서 아~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며 타인을 통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또 한 학습 면에서도 10대, 20대가 공부에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라는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학교가 중요하지. 비단 공부 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 교실 내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자아를 탐색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학교는 다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윤남 : 정명고등학교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이윤경 선생님 : 정명고의 매력은 산 위에 있다는 점이지. 3년 내내 창밖 뷰도 중요하지 않나? 난 그렇던데.....(웃음) 우리 학교는 남산 타워가 보이고, 마치 펜션에 온 듯이 4계절을 모두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적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매우 소중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면도 매력이고, 이건 비단 생기부 작성만을 의미 하는게 아니야. 학생들의 진로, 미래에 대해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정명고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 삶에서 그런 어른들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거든.





---

윤남 : 선생님의 학창 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학교를 좋아하게 되는 경험 같은 것ियो

이윤경 선생님 : 난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았던 것. 시험 볼 때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요약 자료 나눠줬던 것, 중학교 때 합창경연대회 나가서 상 받은 것, 고등학교 때 야자시간에 친구들과 학교 교문 앞 몰래 감 땀던 것, 혹은 몰래 친구들과 외출해서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온 것, 학교를 좋아하는 것에는 늘 친구들이 있었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 친구들과 같이 놀거나 공부한 경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경험들. 그래서 학교를 좋아했던 거 같아.

---

윤남 :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봤을 때, 학교가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윤경 선생님 : 좀 어려운 질문이다. 우선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니? 시험을 보면서 내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지 못했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웠고, 학교에는 늘 친구들이 있는데 좋은 친구들과는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웠고, 별로인 친구들과는 별로인 친구들과도 그럭저럭 적으로 만들지 않고 지내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거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호의적일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 선생님들을 통해 자신보다 약자이거나 어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어. 좋은 선생님들은 약자인 아이들에게 잘해주지만 좀 별로인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시더라고. 마지막으로 경쟁을 통해 나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희망을 갖거나 포기를 하거나 등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

---



---

훈남 : 선생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어떻게 이겨내세요?

이윤경 선생님 : 어려움이 있을 때? 흠...나는 가끔 내가 쓸모없거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 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나를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거든.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은 종교가 있으니까.. 신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재정립을 해. 훈남이도 신을 믿니? 난 신이 나를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걸 다시 깨달게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너무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 같아. 이젠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어. 그래서 난 훈남이를 포함한 나의 제자로 배정된 모든 아이들을 늘 축복해. 너의 미래, 현재를 다 축복하고 너의 과거와 상관없이 너의 현재와 미래가 밝고, 행복하기를 축복하지. 이들의 성적과 상관없이 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니. 난 우리 훈남이가 스스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인지 네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생각하던 말이야. 훈남이는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훈남 : 흠..솔직히 좀 게으른?

이윤경 선생님 : ok. 사람들이 너를 게으르다고 이야기한다 치자. 넌 너의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훈남 : 적절한, 평범한?

이윤경 선생님 : 그래 너의 환경과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던지 상관없이 넌 너무 멋지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사실 살면서 너를 초라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 그게 성적일 수도, 외모일 수도, 근데 외모는 아니겠구나. 네가 워낙 잘생겨서(웃음). 가정형편일 수도 혹은 네가 처해있는 다른 어려움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너를 규정 짓는 게 아니야.

---



---

**이윤경 선생님 :** 마치 금이 있는데, 금은 쓰레기 봉투에 담던, 비싼 포장지에 싸던 금은 항상 몰까?

**훈남 :** 금이요.

**이윤경 선생님 :** 그치? 금이지? 금은 가치가 변하니? 변하지 않아. 단지 쓰레기봉투에 있었다면 꺼내서 닦으면 몰 뿐 그 가치가 변하지 않잖아? 그렇게 너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매길 수 없어. 오직 너만 그렇게 매길 수 있는거지. 우리 훈남이는 학교생활 중에 힘든 게 어떤 부분일까? 구체적으로!

**훈남 :** 저는 제가 게으른 것과 그걸로 인해 오는 실패. 뭐 그런 거요.

**이윤경 선생님 :** 아, 이런 것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구나. 선생님도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해. 내 방법은 매일매일 계획하고 그냥 내가 게으른 걸 인정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이건 성향인데. 그러나 내 게으름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소신이 있어.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는 밥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지만 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설거지를 해놓겠지. 원래 그런 사람이란 걸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조금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떨까? 너의 게으름의 가장 큰 건, 늦게 일어나는 거야?

**훈남 :** 네

**이윤경 선생님 :** 늦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 네가 실천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훈남 :** 항상 일어나서 한 번 더 자는게 문제예요.

**이윤경 선생님 :** 맞아. 선생님 아들에게도 일어나는 즉시 침대에서 나와라. 침대 위에 있으면 다시 잠드니까. 바로 나와야만 되는 거 같아. 사실 힘들지. 선생님도 힘들더라. 우리가 작은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눈뜨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기. 이런 습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훈남 :** 흠. 어! 선생님은 혹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윤경 선생님 :** 대박 많지. 정말 많아. 선생님은 대학 졸업 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학원가에 취직을 했는데 학교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하고 면접을 많이 받는데, 많은 실패를 했어. 최종 면접까지 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



---

**이윤경 선생님** : 그 때 좌절은 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 속상해 하긴 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 나는 신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 실패하면 조금 울고 나서 다시 공부하고 그런 자세로 임했어. 예전에 다이어리를 보니까. 내가 면접을 50번을 봤더라구. 이걸 내가 하루에 2-3군데 면접을 본 건데 그중 딱 한 군데 합격을 했어. 많은 실패를 했고 그 실패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내 가치관을 갖는데 밑거름이 된 거 같아. 대답이 됐니? 또 질문이 있을까

**윤남** : 선생님의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윤경 선생님** : 외모? 안 웃으면 어떻게 하냐..(웃음) 맥이 비슷한데 내가 신을 믿는 것이 나의 자신감의 근원이야. 실패해도 좌절할 이유가 없고, 나를 돕고 함께 하는 분이 계신다,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

---

## 〈대화 뒤풀이〉

“사실 학생과 이렇게 단 둘이, 면대 면으로 이야기한 건 처음이야. 대부분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조언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단 둘이 이야기한 건 처음이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넌 내게 소중하고 특별하단다. 예의 바르고 멋지거든. 나는 너의 멋짐의 근원은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강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윤남이야. 난 찌질한 짓은 안 한다’ 는 자존감이 그 근원이라고 생각해. 내가 예뻐하는 학생과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선생님도 영광이었습니다.”

**이윤경 선생님**

“일단, 원가 그냥 선생님 이라기보다는 제 인생의 선배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게 되었어요. 음. 원가 삶의 태도를 바꿔야 겠다고 느꼈고, 그리고 내면의 힘이 대

단하다고 느꼈어요.” **윤남** “어쩔 수 없어서 다니는 곳, 학교!

**찌질 하지 않은 삶을 위한 내면의 힘을 기른 대화**

**선생님 보다, 인생 선배와의 대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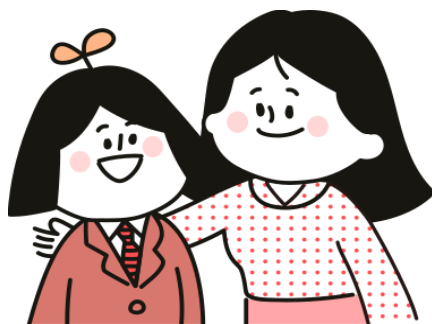
“ 남들 따라서 다니는 학교,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  
그래도 결정한 것은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고요의 조용한 대화록 돌아보기”

---

## 〈학생의 이야기〉

학생이라는 말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고요는 학생이  
니까 학교에 다닌다. 또래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따라다니는 것이  
다. 학기초에는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다. 사람 관계도 힘  
들고 적응도 안 되고 그 때는 조금(?), 사실 많이 힘들었다. 자퇴를 하지  
않았으니, 학교를 잘 나오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학교 잘 다니고는  
있다. 학교를 잘 나오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것은 없다. 그저 조용히 지내  
고 싶다.



## 〈인터뷰〉

**고요**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학교란 무엇인가요? 학교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정혜숙 선생님** : 우리나라에서 학교란, 보통 좁은 의미로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은 좀 넓게 보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인생의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해.

**고요** : 음, 그럼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는요?

**정혜숙 선생님** : 학교에 오면 친구를 만나서, 어젯밤 같이 했던 게임 얘기를 하면서 즐겁고, 어떨 때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 받기도 하잖아.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급식소로 이동하고, 내가 밥을 다 먹어도 친구가 먹고 있으면 기다려 주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정겹다. 편집자주). 생일이 되면 카톡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들은 사회에서도 참 중요해. 이처럼 학교에서는 공부 말고도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해.

**고요** : 그럼 정명고등학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매력이에요.

**정혜숙 선생님** : 참 괜찮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학습적인 것도 있지만,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더 그래.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어.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도 있는 것 같아.



---

**고요** : 선생님의 학창 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학교를 좋아하게 된 경험 같은 거요

**정혜숙 선생님** : 학교 하면, 친구들과 선생님들 생각이 나네. (음.....)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직도 만나고 있거든. 그리고 선생님 중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떠오르네. 체육대회 끝나고 교실에서 수박을 먹었는데, 그때 참 놀랐어. 교실에서 수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선생님의 끝간 데 없는 웃음이 생각난다. 편집자주). 선생님께서 우리 반을 생각해서 수박을 사오시고, 썰어 주시고, 그렇게 먹으면서 정을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고3 때 선생님 사모님께서 수능 잘 보라고 초콜릿을 봉투에 넣어 주셨는데, 선생님도 고3 담임교사 할 때 보니 그분처럼 학생들에게 줄 초콜릿 봉투를 만들고 있던라고. (역쉬!!!)

---

**고요** :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봤을 때 학교가 선생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정혜숙 선생님** : 졸업생들이 찾아와서 그러는데 학교는 울타리래. “선생님! 학교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보호받고 있었다라고요. 사회는 제가 다 알아서 해야 하니 불안해요. 잘못해도 봐주는 게 없어요”라고. 고요도 학교의 보호 아래서 사회성을 키우고 자기 역량을 높여서 학교 밖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길 바래.

---

**고요** : 저는 가끔 일상에서 불안,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에서의 어려움을 겪어요. 선생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정혜숙 선생님** :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업무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데 학교에서 힘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고민을 함께할 동료 선생님이 계셔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같아.

---



---

**고요** : 저는 진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혜숙 선생님** :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점차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거야.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고요** : 선생님께서 진로를 선생님이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혜숙 선생님** :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수녀님 이셨는데 가정과목을 가르치셨어. 자취를 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데 담임선생님께서 가정방문도 오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어. 그래서 나도 저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해서 선생님이란 꿈이 생긴 것 같아.

**고요** :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혜숙 선생님** :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

---

## 〈대화 뒤풀이〉

“고요도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두 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꾸준히 자기 진로를 위해 공부했으면 해.” - **정혜숙 선생님**

“학교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 **고요**

---

“ 남들 따라서 다니는 학교,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

그래도 결정한 것은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고요의 조용한 대화록 돌아보기”

---





---

“아씨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에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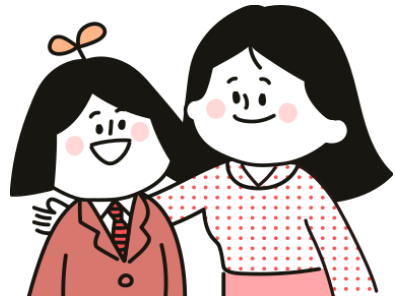
다만, 더 많은 경험을 갈구한다.

‘혼자가 아닌 나’의 경험을 꿈꾸는 아씨의 이야기!”

---

## 〈학생의 이야기〉

아씨. 아씨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공부를 배우기 위해, 대학을 가기 위해서다. 학교를 다니면 다양한 친구들,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단체 생활을 배우기도 한다.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히고 대처하는 방법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학교는 스스로 깨닫기 위한 공간이다.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좋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다른 학생들처럼 공부와 성적이 주된 고민이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마찰도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으로 느껴진다. 특히 또래들과는 의견차이, 성격 차이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때문에 학교에 온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한다. 시험을 준비할 때, 성적이 나왔을 때의 어려움도 친구들과 함께해서 이겨낼 수 있다. 그 과정이 경험과 지식을 배워 나가면서 친구들 속에서 성장하는 즐거움으로 느껴진다. 그러니, 학교를 다니면서 더 해보고 싶은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경험. 아씨에게 오늘의 인터뷰도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인터뷰〉

**아씨** :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윤희 선생님** :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상충한다고 봐야 되는데, 사람이 어느 지점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 지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학교라는 곳은 가장 단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잖아. 사회적 인간적 측면을 향상시킨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노출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아씨** : 정명고등학교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조윤희 선생님** :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다른 것이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서 어떤 사안에도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없어. 학생들에게 그 분위기가 그대로 전수가 되어 적응이 되는 것 같다. 선생님들 간에 의사를 존중하며 학교 조직에 매우 순응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시거든.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다소 순응적이고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대부분 학생들도 예의가 바른 것 같아. 그게 다른 학교와 조금 차이점인 것 같아.

**아씨** : 선생님의 학창 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학교를 좋아하게 되는 경험 같은 것ियो.

**조윤희 선생님** : 선생님은 성격적으로 방어적인 편이었고, 학교생활 자체가 지극히 개인주의였었어. 딱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학교가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선생님 중학교 때 전국합창대회가 있었어. 선생님 학교가 그 대회에서 항상 1,2등을 하던 학교였어. 그런데 그때 내가 반주자가 된 거야. 반주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상생활이 합창 반주였어



학교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존감이 높아졌던 것 같아. 그리고 학교 대표 반주자 자체로도 타이틀이 굉장히 좋잖아. 전국대회 나가서 1, 2등을 하는 학교의 반주자!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또 엄청나잖니? 그런 학생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기억 자체가 나한테는 특별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시 학교를 가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

**아씨 :**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봤을 때, 학교가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조윤희 선생님 :** 진학을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지적인 면에서 진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대학에 갔을 때 합격이라는 도장을 받고 나 자신의 수학 능력이 높아졌다는 인장을 받은 듯한 느낌. 지나고 나니까 대학 이후에는 크게 진보된 느낌은 없었으나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거치고 대학까지 갔을 때 내가 좀 더 지성인이 되었다는 느낌이 영향을 준 것 같아.

**아씨 :** 저는 가끔 일상에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요. 선생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떻게 이겨내세요?

**조윤희 선생님 :**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은 나의 성격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직업 자체가 교사다 보니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내 마을에 드는 학생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잖니, 그러면 그 다양하게 만나는 학생들과의 관계가 어렵기도 해. 그래서 나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오해할 수 있고, 또 나의 표현이 좀 지나칠 때도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흔히 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서로가 맞춰 나가는 건데 사실 교사와 학생은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잖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거지. 의도치 않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아씨 : 저는 말씀드린 대인관계에 어려움도 있지만 성적을 이유로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윤희 선생님 : 나의 경우나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적을 향상시켰던  
아이들의 특성들을 종합해보면 인간관계와 사회성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조금 자기 일  
에, 자기 학업에 몰두하는 것을 어려워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어떤 점에 더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학업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예를 들면, 고시를 치른다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패턴이 친구와 연락을 끊고 나의 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나  
한테 매진해야 원하는 결과치가 나오거든. 결국에는 내 공부에 초점을 두고 그 일에 몰  
입하는 사람의 학업능력은 향상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아씨 : 고등학교 시기가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미래 영향 부분 등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해요.

조윤희 선생님 : 그러니까 진로 부분이네,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 중학교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악을 좋아했고, 그래서  
나는 음악을 할 건가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고등학교 가서 영어가 좋아지  
면서 사실 영어는 중학교 때도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영어만 공부하면서 그 과목  
만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우리 때와 너희 때는 조금  
다른 하지만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내겐 크게  
와 닿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나는 단지 영어가 좋았고, 그냥 재미로 공부  
했고, 영어와 관련된 꿈을 꾸었던 것 같아. 먼 미래까지는 생각 안 해봤던 거 같아. 그  
리고 단기간의 목표로 대학에 합격하면 대학 생활이 무척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살짝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진학 준비를 했던 것 같아.



아씨 : 선생님이 되었을 때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조요경 선생님 : 음 그렇지. 엄청 다르지. 학생의 신분과 교사의 신분은 일적인 부분에서 다르지. 그러니까 학생은 수동적인 태도로 학업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고, 목표라고 한다면 진학을 해야겠다 라는 점, 그리고 진학 이후에 진로 문제는 조금 막연하지만 지금까지 스텝 하나 하나를 단계별로 밟아왔듯이 또 그렇게 하면 된다 라는 패턴이 그대로 내 몸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교사가 되어서 학교로 돌아왔을 땐 모든 것이 낯설고 학생을 대하는 방식도 낯설었어. 나는 기존 선생님들보다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 그런데 막상 각기 다른 학생들을 앉혀 놓고 내가 무언가를 설명을 할 때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습득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내가 사용하는 교수법 자체가 맞고 틀리고가 없더라고. 내가 굉장히 자신했던 교수법이 어떤 아이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정말 우왕좌왕 했었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쳤다가, 저걸 가르쳤다가 원가 체계도 없게 가르쳤었지. 아씨도 무언가 하나를 열심히 하면 노하우가 붙듯이 이 일도 몇 십 년 하니 노하우가 생기더라. 아이들이 학습 효율성을 위해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들의 사고를 어떻게 구조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더라.

## 〈대화 뒤풀이〉

“저도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좀 더 저희 학교에 대해서도 일단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반대로 반성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의 학창 시절 얘기도 들으면서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번 인터뷰로 좀 더 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아씨



---

## 〈대화 뒤풀이〉

“선생님이 아씨에게, 사실 담임선생님도 아니고 수업 많이 들어가는 교과목 선생님도 아니잖아. 잘은 모르지만 아씨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고 남을 많이 배려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 배려하고 뭔가 케어 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면이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관계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점이 학생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들인지 아니면 아씨 너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씨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았어. 사실 이 아이들이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고 학교생활을 할까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거든. 인간관계 과연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할까?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최고로 받기 위해서 사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인간관계라는 점이 사실 좀 놀랐고. 선생님 교과가 진로다 보니 이왕이면 아씨가 목표한 바를 꼭 성취했으면 좋겠고 네가 매우 비중 있게 생각하는 인간관계를 한 3분의 1 정도 덜어내면서 아씨가 자신에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지난 상담 때 말했던 간호사라는 진로를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유지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본인한테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 - 조윤희 선생님

---

“아씨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에 다닌다.

다만, 더 많은 경험을 갈구한다.

‘혼자가 아닌 나’의 경험을 꿈꾸는 아씨의 이야기!”

---



---

”이제는 오로지 등갓길만 힘들다!

예전에 잘 몰랐지만 학교라는 공간에 고민을 할 사람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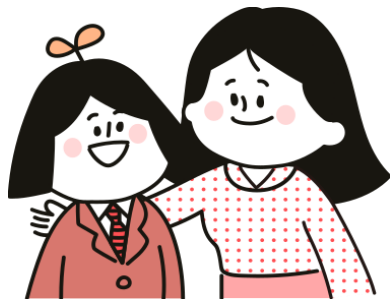
그러니, 인간은 한 번은 공부에 몰입해 보는 경험을  
결심한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나에게 그런 경험을 보여주고 싶다.

---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의 이야기!”  
〈학생의 이야기〉

인간에게 학교는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곳이지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다닌다.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관찰하는 것이 학교 다니는 이유다. 인간은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비교하기도 한다. 직장에서의 동료가 친구, 상관이 선생님이다. 학교나 직장이 모두 사회생활이다. 직장인들도 출근이 제일 힘들 것이다. 인간이에게는 지금 학교 다니면서 겪는 어려움은 등교 시간이다. 다른 것 힘들지 않다. 그래도 친구 보러 온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그 어려운(?) 등교를 해 낸다. 인간이는 3학년이 되면 수능 준비만 하고 싶다. 즉 공부에만 몰두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껏 어쩌다 만나서 인연이 생길 사람들 앞에서 뽀뽀할 정도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 정도로 해보고 싶어서다. 그리고 자기만족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의 새해 목표! 다른 사람에게 뽀뽀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공부에 몰입하자! 그래서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응원을 받아보려고 한다.



## 〈인터뷰〉

**인간**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학교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황성일 선생님** :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줍니다. 다른 친구들은 진로나 대입을 위한 공간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교 존재 이유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 작은 사회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찾는 게 학교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은 1인분 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황성일 선생님** : 요즘 각자도생 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나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게 과거에 비해 더 심해져 이기적인 것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문화라 볼 수 있지만 완전히 개인적인 문화이기에 잘못된 문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임과 동시에 상호의존적 존재라서 혼자서는 절대 뭔가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사람은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배우고 느끼는 게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으며 혼자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같은 사회에서 나와 얼굴 같은 사람, 성격 같은 사람, 취향 같은 사람이 없듯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회고 학교이며 그런 사람들과 얼굴 부딪치며 생활하며 티격태격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마주하며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협업과 배려를 배우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학교는 결국에는 내가 나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간**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명고에는 어떤 매력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황성일 선생님** : 높기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면 높이 있으면 힘들고 경치만 좋다는 수준이지만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가 어디든 위에 올라가면 못 보던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위에서 보면 부천 시내 전체가 보이듯이 내가 미처 보지 못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정명고를 보며 내 인생에서도 내 눈앞에 있는 것 만이 아닌 전체를 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명고가 높기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숲을 보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예요. 또한 하늘을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정명고는 위에 있기에 하늘이 보이니까 좋잖아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여유를 갖고 사색을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예요.

---

**인간** : 선생님의 학창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학교를 좋아하게 된 경험 같은 거요

**황성일 선생님** : 학교에는 언제든지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이 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 좋았고, 그들이 지금도 연락하는 평생 친구이며 늘 똑같은 얘기지만 만나면 고등학교, 중학교 얘기하며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들이 제일 크지요. 당시 집이 좀 삭막하였는데 학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 뿐이지 오면 밝고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제일 큰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가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위로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선생님을 찾아갔었는데 고민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인간** : 선생님의 지금까지 인생에서 봤을 때, 학교가 어떤 영향을 준거 같으신가요?

**황성일 선생님** : 위와 비슷하게 고교때 담임선생님을 보면서 교사의 꿈을 키웠는데 그 때 선생님이 무심한 듯 보이면서도 학생들을 진심으로 챙기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학교생활을 하고 자라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 교사의 꿈을 꾸고 그 선생님이 생각이나 내가 이제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겠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전해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공교롭게 꿈이 교사였기에 내가 가야 할 학교의 학생들에게 그 사랑을 주어야 겠다 다짐했지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보다 학교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과 생각들이 학교가 준 가장 큰 영향 같습니다.

---

**인간** : 저는 가끔 일상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껴요. 선생님도 어려움 같은 것이 있어요?

**황성일 선생님** : 저는 자존감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열등감도 심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도 자주 하였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서였어요. 그때 사람이 대중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매우 존귀한 존재이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자신은 유일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결코 다른 것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며, 다 다르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나란 존재만으로도 귀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때를 기준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

**인간** : 저는 자존감이 낮은 것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성일 선생님** :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을 계기로 나의 가치를 알고 내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수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인간** :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미련이 남지 않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황성일 선생님** : 처음에는 교직이 아닌 공대로 입학하였는데 잘 맞지 않아 교사가 되기 위해 수학으로 전공을 바꾸었고, 그리하여 교사가 된 것이 가장 미련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

**인간** : 못해서 미련이 남은 것 중의 하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황성일 선생님** : 다시 돌아간다면 적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볼 걸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대화 뒤풀이〉

“인간은 1학년에 처음 들어와서 만났을 때 너무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서 예쁘고 부듯했는데, 2학기 들어 어느 순간부터 결석이 잦아지고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2학년 올라가서도 지속이 되었던 거 같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이해하고 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도 용기를 내서 함께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줄 존재는 결국 인간의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 친구들이지. 혼자서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깊이 우울만 빠지고 어려워 질 거야 학교는 인간을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너도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 같아. 2학년 때는 내 수업을 듣지 않아서 더 잘 볼 수 없었지만 인간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가끔 인간의 안부를 물어보면 잘 적응 못 했던 부분을 듣고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많았던 거 같아. 그래도 요즘은 학교를 잘 나오는 거 같아서 다행인 거 같아. 그리고 이렇게 인간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감사하고. 너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많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은 아주 잘하고 있고, 아주 노력하고 있고 또 섬세하고 멋진 아이라는 것을 본인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만큼 너는 귀하다는 것을 그러니 그 귀한 재능을 혼자 썩히지 말고 밖으로 좀 펼쳐줬으면 하는 게 선생님 바람이야. 그 밖으로 펼쳐줄 곳이 학교라는 공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인으로 따지면 80억인데 우리나라에 5000만 인구 중에서 우리가 사제지간으로 만난다는 거는 거의 기적이야. 그런 많은 사람 중에서 그 기적이라는 게 나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인간도 그런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나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난 인연들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나은 학교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인간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 할게.” - 황성일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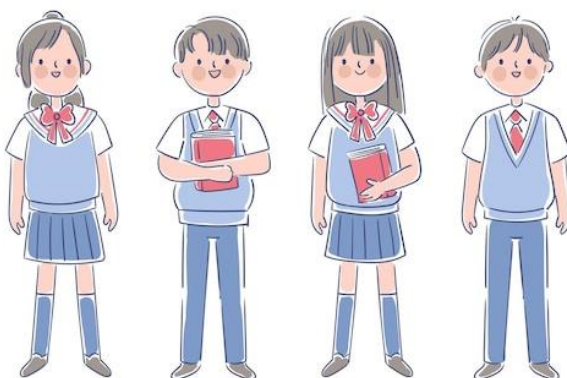
남



---

## 〈대화 뒤풀이〉

“솔직히 저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약간의 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크게 다를 바 없이 저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신 한 명의 사람이고, 그래서 오히려 듣는데 더 즐거웠던 거 같습니다. 선생님이란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약간 더 친근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인간



---

“이제는 오로지 등갓길만 힘들다!

예전에 잘 몰랐지만 학교라는 공간에 고민을 할 사람이 많다.

그러니, 인간은 한 번은 공부에 몰입해 보는 경험을 결심한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나에게 그런 경험을 보여주고 싶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의 이야기!”

---

